

◆ General Council of IFLA, thirty-seventh Session, 1971

國際圖書館協會聯盟總會報告

1971年 第37次

李 炳 穆
(延世大學校 圖書館學科)

★ 編輯者註 ★

本記事는 1971年 10月 23日 梨花女子大學校 圖書館에서 開催된 「韓國圖書館學會 第2回 學術發表會」에서 行한 “國際圖書館協會聯盟總會 參席報告”를 整理한 것이다.

I. 序

第37次 國際圖書館協會聯盟總會는 1971年 8月 27日 부터 9月 4日까지 英國의 리버풀(Liverpool)에서 開催되었다. 總會가 始作되기 前 8月 24일부터 9月 1日까지는 開發途上國家를 위한 유네스코 세미나가, 總會期間中인 8月 27일부터 9月 3日까지는 圖書館用品 및 備品展示會가, 總會 直後 9月 6일부터 8日까지는 런던 圖書館見學이 있었다.

國際圖書館協會聯盟(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Associations de Bibliothécaires— 略稱 IFLA/FIAB)은 “圖書館學 및 書誌學分野의 相互協力을 진작하고 圖書館, 圖書館專門職團體, 書誌家, 其他 聯關된 團體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目的” 아래 1927年 非政府 國際機關으로 創設되었다.

現在의 組織을 보면 任員陣으로서 會長 1名, 副會長 6名, 財務擔當官 1名, 出版擔當官 1名, 事務總長 1名으로 任員이 構成되어 있다. 最高 議決機構로는 總會(General Council)가 있고 그 밑에 執行委員會(Executive Board)와 諮問委員會(Consultative Committee)가 있다. 總會는 正會員 代表, 準會員 代表, 옵저버로 構成되며, 執行委員會는 會長, 直前會長, 副會長, 財務擔當官, 事務總長으로 構成되고, 諮問委員會는 各部會와 委員會의 委員長 또는 幹事와 執行委員會 委員들로 構成되어 있다. 實質的인 活動은 館種別로 構成된 部會(Section)와 業務別로 構成된 委員會(Committee)에서 全部 이루어지고 있는데 現在 5個 部會와 12個 委員會가 있고 部會안에는 8個 分會가, 委員會안에는 1個 分科委員會가 設置되어 있다. 會員은 正會員(Member-Association)과 準會員(Associate-Member)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正會員만이 投票權을 行使할 수 있다.

1971年 4月 現在 正會員은 89, 準會員은 182로서 우리나라는 韓國圖書館協會가 正會員, 國立中央圖書館과 國會圖書館이 準會員으로 加入되어 있다.

近來 IFLA가 展開하고 있는 事業中 重要的 것을 추려보면 圖書館專門職의 組織問題, 國際圖書의 海事業(IBY), 萬國書誌統整事業(UBC), 資料交換, 圖書館建物計劃, 圖書館學의 理論的 研究, 圖書館業務의 自動化 및 機械化, 圖書館業務의 標準化作業 등이다. IFLA와 밀접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國際機構로는 그 자매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 FID를 비롯 UNESCO, ISO, ICSU 등이 있다. 現會長은 벨지움 브릿셀 王立 圖書館長으로 있는 H. Liebaers 博士, 事務總長은 M. Wijnstroom 女史이며 事務局은 事務總長이 소속한 네델란드로 되어 있다. 今年 總會에서는 多年間 IFLA 會長으로 수고한 Frank Francis경이 名譽會長으로 처음 추대되었다.

總會는 通常 每年 8月 末에서 9月初에 걸쳐 1週日間 開催되는데 우리나라는 1955年 同 聯盟에 加入한 이후 1969年 코펜하겐에서 있었던 第35次 總會에 姜周鎮會長이 參席한 이래 이번이 두번째이다. 今年 總會에는 金宗會(國防科學研究所 圖書室長), 朴啓弘(韓國科學技術研究所 圖書室次長), 李相助(韓國外國語大學 圖書館長), 崔渡喆(群山高等學校長)氏와 筆者가 參加하였다. 非公式 集計이긴 하나 參加國數를 살펴보면 昨年 모스크바 第36次 總會때의 40個國보다 훨씬 많은 60餘個國이 參加하였으며 參席者數는 무려 750餘名에 이르렀다. 이를 國家別로 分類해 보면 英國 178, 美國 82, 西獨 38, 스페인 36, 이태리 31, 캐나다 24, 소련 23, 유고 슬라비아 17, 덴마크 14, 네델란드 13명 등의 順으로 되어 있다. 아시아地域에서 가장 많이 代表를 보낸 나라는 7名을 보낸 日本이며 그 다음이 5名을 보낸 우리나라이다. 특히 이번 總會에 例年에 볼 수 없는 많은 國家가 參加한 것은 總會에 앞서 있었던 開發途上國家를 위한 유네스코 세미나에 아프리카와 아시아地域의 많은 國家들이 參加하였기 때문이었다.

II. 開發途上國家를 위한 세미나

總會史上 처음으로 試圖된 IFLA Pre-session Seminar는 “圖書館職의 最近 發展動向”(Recent Development in Advanced Librarianship)이란 主題로 8月 24일부터 9月 1일까지 總會와 같은 場所에서 開催되었다. 세미나에는 20餘個 開發途上國家로부터 25名이 參加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朴啓弘氏와 筆者가 參席하였다. 세미나 主催側의 要請에 따라 우리들은 韓國圖書館 및 圖書館學의 最近 發展을 소개하는 論文을 提出하였다. 論文 題目은 “韓國에 있어서 圖書館과 圖書館學”(Libraries and Librarianship in the Republic of Korea)이었으며, 朴啓弘氏는 韓國圖書館 略史, 公共圖書館, 特殊圖書館에 관하여 다루었고 筆者는 大學 및 大學校圖書館, 圖書館專門職團體(圖書館學會, 圖書館協會 등)에 관하여 記述하였다. 그런데 이들 論文은 세미나에 提出된 다른 論文들과 함께 英國에서 出版하기로 決定되었다. 세미나 發表者들은 圖書館 및 圖書館學界의 巨物級 人士들로 構成되어, 세미나의 취지는 英國圖書館協會長 G. Chandler, 公共圖書館은 캐나다 토론토公共圖書館長 H.C. Campbell, 大學圖書館은 英國버밍엄大學圖書館長 K.W. Humphries, 圖書館學校는 美國 Kent大學校 圖書館學大學院長 G. Marco, 國立圖書館은 벨지움의 브뤼셀 王立圖書館長 겸 IFLA會長 H. Liebaers, 國立技術圖書館은 英國 國立科學技術貸出圖書館長 D.J. Urquhart, 國際圖書館學은 유네스코의 P. Lazar氏가 맡았다. 세미나는 全體적으로 볼 때 매우 有益한 모임이기는 했으나 한편으론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커다란 gap이 發表者와 參加者 사이에 있었던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發表者는 圖書館 및 圖書館學分野의 최첨단을 얘기했고 參加者들은 자기 나라의 落後된 圖書館 事情을 항상 念頭에 두고서 討論에 任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었다.

III. 總 會

總會는 IFLA 會長 H. Liebaers 博士 司會로 8月 30日 리버풀市立中央圖書館에서 開會되었다. 會長의 開會辭에 이어 리버풀市長 Alderman Charles Cowlin, 英國의 藝術, 圖書館擔當文部相 Rt. Hon. Viscount Eccles, 英國圖書館協會會長이며 리버풀市立中央圖書館長인 G. Chandler 博士의 祝辭 및 환영사가 있었고 이어 會長의 開幕演說이 있었다.

會長은 그의 演說을 통하여 (1) IFLA의 汎世界性—Unesco, Commonwealth Foundation, British Council 등의 지원으로 예년보다 훨씬 많은 國家들이 參加하게 된 것을 계기로 IFLA가 유럽 中心의 組織體에서 점차 凡世界的인 團體로 發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

였고, (2) 萬國圖書誌統整事業—IFLA가 展開 혹은 지원하고 있는 各種 書誌統整事業, 書誌作成에 관련된 諸盤問題 解決에 努力을 경주하고 있음을 밝혔고, (3) 國際圖書의 해—유네스코가 1972年을 國際圖書의 해로 定한데 발 맞추어 各國의 圖書館 및 圖書館界가 이 事業을 積極 추진하도록 권고하였으며, (4) 圖書館專門職의 組織—各國의 圖書館事業 開發과 이에 따른 專門職의 組織을 더욱 公고히 하며 國際적으로 相互協力해서 解決해야 할 圖書館 活動은 國際적인 水準으로 끌어올려 各國間에 協助와 協同을 이룩할 것을 強調하였다.

이어 UNESCO와 FID代表의 祝辭가 있었고 오후에는 財務擔當官 P. Kirkegaard氏의 財務報告를 들었다. 그의 報告가운데 특기할 것은 (1) 1970~73年度에 걸쳐 IFLA 운영자금으로 \$100,000를 美國의 Council on Library Resources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 것과 (2) 昨年 IFLA 執行委員會에서 통과된 본 새로운 會費策定問題에 관한 것이었다. 새로운 會費策定基準은 貧弱한 IFLA의 財政을 타개하기 위해 財務擔當官 P.Kikegaard가 제안한 것인데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各國의 正會員과 準會員에게 一括적으로 負擔시켰던 會費를 UN Scale에 따라 國家單位로 UNESCO에 納入하는 會費의 0.1% 씩을 IFLA會費로 策定하자는 案이었다. 이 새로운 案에 의하면 美國, 英國, 佛蘭西 등과 같이 UNESCO會費를 많이 내고 있는 國家는 따라서 IFLA會費도 많이 내야 한다는 理論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까지 正會員 1, 準會員 2의 年間會費로 SF450을 내던 것을 SF167만 내면 되게 되었고, 더우기 國家單位로 會費를 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은 圖書館과 새로이 圖書館學科가 IFLA에 準會員으로 加入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셈이다. UN Scale에 의한 우리나라 會費는 1971年은 0.1% SF167, 1972年은 0.06% SF100, 1973年 0.08% SF134이다. 같은 날 午後에는 全體會議에 들어가 “圖書館 專門職의 組織”이란 總會 主題를 가지고 本會議가 열렸다. 本會議에서는 K. Domes (美國)의 美國圖書館協會, J. Letheve(佛蘭西)의 佛蘭西에 있어서 圖書館專門職의 組織, B.Palmer(英國)의 英國 圖書館職教育의 發展, Mrs. R. Pankhurst (에치오피아)의 東아프리카에 있어서 圖書館 專門職의 組織 등에 관하여 發表하였는데 主로 各國의 圖書館協會, 圖書館事業, 圖書館發展에 관한 內容이었다. 總會에는 總 141편의 論文이 提出되었으며 大部分 4個 公式國語(英語, 獨語, 佛語, 朝鮮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다. 이후 3日間은 各部會와 委員會 別로 專門會議가 열렸고 日程表에 따라 각己自己에게 關心있는 部會와 委員會에 參加하였다.

IV. 決議事項

部會(分會 包含)와 委員會(分科委員會 包含) 가운데 決議事項을 낸 곳은 다음과 같다.

〈大學圖書館分會〉

1. 大學의 論文集과 이와 유사한 文獻의 利用을 위한 案內書를 편찬하기로 하고 그 기금은 유네스코로부터 확보토록 한다.

2. 大學圖書館의 効果에 관한 實態調査를 하기로 하고 그 기금은 유네스코로부터 확보토록 한다.

3. 開發途上國家의 大學圖書館 發展問題에 관한 地域세미나 개최의 重要性을 再次 強調한다. 이는 유네스코의 보조를 얻어 極東, 中東, 西아프리카와 南아프리카에서 개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계획은 유네스코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한다.

4. 諮問委員會에서 提案된 主題專門家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를 全的으로 지지한다.

〈定期刊物 및 逐次刊行物委員會〉

1. 逐次刊行物 分野에 있어서 가장 最近에 開發된 새로운 技術을 널리 알리도록 한다.

2. 逐次刊行物書誌 편찬사업을 展開한다: (1) 現刊定期刊行物國別書誌(*Bibliography of National Directories of Current Periodicals*)의 新版을 發行하고 (2) 日刊新聞書誌 편찬을 위한 實務委員會의 計劃을 實行에 옮기도록 한다.

〈統計 및 標準化委員會〉

統計 및 標準化委員會는 IFLA의 모든 部會와 委員會가 同 委員會 事業에 關心을 기울여 주도록 總會가 執行委員會에 건거하였음을 強調하였다. 事務局, 部會, 委員會는 各各 標準化 및 統一化作業에 관한 情報를 統計 및 標準化委員會에 提供해서 同委員會가 FID, ISO/TC 46 등과 함께 圖書館 및 文獻메이선 分野의 標準化 作業을 強化하기 위한 合同諮問委員會(Joint advisory committee)를 構成할 수 있도록 協調해 줄 것을 決議하였다.

〈稀購書, 貴重圖書 및 文書委員會〉

1. 圖書 및 圖書館史 現刊國際書目(International Current Bibliography of the History of the Printed Book and the Library, 略稱 IBHB)作成을 조속히 完結하여 곧 出刊할 것과

2. 앞으로의 事業計劃에 資料保存 및 保護(Conservation)에 관한 問題를 追加할 것을 決議하였고

3. 執行委員會가 國際資料保存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Conservation)計劃을 지원해 줄 것과 유네스코에 이 事業을 건거해 줄 것을 要請하였다.

〈圖書館建物委員會〉

1. 國立圖書館建物計劃에 관한 國際會談을 1973年

로마에서 개최할 것과

2. 同 委員會內에 常任諮問委員會를 설치할 것을 決定하였다.

〈書誌委員會〉

1. 次期 1972年 부다페스트에서의 本 委員會 會議主題는 書誌情報分野에 있어서 利用者의 要求와 利用者에 대한 書誌訓練으로 한다.

2. 開發途上國家의 書誌 현황에 대한 研究와 장차 이들 國家의 書誌活動 實態調査를 하기 위한 資料를 수집하기로 한다.

3. 本 委員會는 다음 問題들을 調査 研究토록 한다.

(1) 現在 書誌情報에 영향을 미치는 政府 및 非政府機構의 역할(UNESCO, IFLA 등) (2) 自然科學 및 社會科學分野에 있어서 科學 및 技術情報를 위한 情報體系 情報網內에서의 書誌情報의 位置 (3) 書誌家의 專門職과 그 訓練.

4. 萬國書誌統整事業 (Universal Bibliographical Control) 開發에 있어서 보다 바람직한 協調와 효율을 期하기 위하여 IFLA가 書誌委員會, 編目委員會, 機械化委員會의 委員長 혹은 幹事들로 構成된 實務委員會를 構成할 것을 要請하였다. 이 實務委員會가 맡을 事業은 萬國書誌統整事業에 關聯된 各 部會와 委員會의 장래 事業計劃을 조정하는 일이다.

5. 書誌委員會가 發刊한 資料, 例컨대 世界各國의 書誌業務(*Bibliographical Services throughout the World*)와 本 委員會의 資料들을 新設된 實務委員會가 有効 적절히 利用할 수 있게끔 유네스코와 협조를 이룩하도록 執行委員會에 要請하였다.

〈圖書館理論 및 研究委員會〉

1. 圖書館用語制定에 따른 國際協調

本 委員會는 圖書館用語制定 問題에 따른 調査, 研究에 있어서 國際間에 긴밀한 협조를 이룩할 것을 強調하였다. 또 同 委員會는 UNESCO, FID, ISO가 추진하고 있는 情報業務分野의 多國語辭典 편찬사업이 有用하다고 판단하고 이와 유사한 作業이 圖書館學分野에도 IFLA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圖書館學分野 전문가 사이의 언어장벽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本 委員會는 앞으로 2~3年內에 가장 重要한 圖書館基本用語 25~30個를 選擇하여 그 用語에 解説을 붙여 가능한 限 여러나라 國語로 편찬할 意向을 밝혔다. 本 委員會는 이에 따라 IFLA 執行委員會의 동의를 얻어 圖書館用語制定에 관한 特別實務委員會를 構成해서 基本圖書館用語比較辭典(Comparative dictionary of basic library terms)을 마련하고 그 초안을 1973年 第39次 IFLA 總會 全體會議에 提出하도록 決議하였다.

2. 1972年 第38次 總會의 本 委員會 프로그램

本委員會는 1972年 本委員會 第3次 會議의 討議 主題로 圖書 및 讀書의 社會學的인 研究方法과 諸般問題(Problems of Conditions and Methods of Research in the Field of Sociology of Books and Reading)로 決定하였다.

3. 本委員會와 FID의 情報理論委員會와의 協調

(1) 兩委員會는 2~3年 미리 長期協同計劃을 수립한다.

(2) 兩委員會의 合同會議를 1973年 初에 개최하여 현안 문제를 討議하도록 하고 圖書館學 및 情報學의 統合 및 限界問題를 다루도록 한다.

4. 本委員會의 實務委員會

(1) 各國 圖書館協會 및 규모가 큰 도서관 학술연구 단체의 代表들로 구성된 상임실무위원회(Standing Advisory Committee)를 구성하도록 한다.

(2) IFLA 總會 期間中 實務委員會의 정규회합을 可能하게 하도록 IFLA 執行委員會에 要請하기로 한다.

〈UNISIST 實務委員會〉

UNISIST에 관한 實務委員會는 文獻정보학 및 圖書館學 研究, 發展에 관한 實務委員會(Working Group on Research and Development in Documentation and Librarianship)로 개칭할 것을 建議하였다.

〈開發途上國家를 위한 實務委員會〉

開發途上國家를 위한 實務委員會(Working Party on Developing Countries)를 두기로 總會에서 決議되었다. 이 委員會는 IFLA 執行委員會 委員가운데 1명과 아시아, 東南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地域別로 各 1名씩 選出하여 구성하도록 提案되었다. 이 委員會를 新設하게 된 근본 취지는 開發途上國家가 IFLA의 여러 部會와 委員會의 各種 事業活動에 적극 참여함과 아울러 開發途上國家의 圖書館發展에 관한 共同 關心事를 討議하기 위한 廣場을 갖자는데 있다.

IV. 圖書館用品 및 備品展示會

各國 圖書館協會의 추천을 얻어 總 22個 圖書館用品 및 備品商과 其他 關係 團體가 出品한 圖書館用品 및 備品 展示會(Exhibition of Library Technology and Library Supplies)가 總會 期間中인 8月 30일부터 9月 2日 까지 리버풀市立中央圖書館 건너편 St. Georges Hall에서 열렸었다. 처음 意圖한 바 대로는 되지 않은 듯, 대부분이 英國用品商들이었으며 구라파지역 이외 로부터 參加한 것은 美國 뿐이었다. 따라서 展示會는 매우 영성할 느낌을 주었지만 그런 가운데도 筆者가 가장 關心있게 본 것은 美國 3M Company와 英國 Diver Detection Devices의 電子方式에 의한 장서도난 방지시스템(Electronic Detective System)이었다. 展示會와는 別도로 各國圖書館協會가 기증한 冊子가 參加者들에게 배부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韓國圖書館協

會를 소개한 팜플렛트를 가져갔었다. 비록 수 페이지 밖에 되지 않는 조그마한 冊子였지만 韓國圖書館協會를 各國에 알리는 좋은 기회였었다.

V. 結

總會 參席을 통하여 筆者가 느낀점 가운데 몇가지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처음으로 參席한 總會에서 모든 討議內容과 問題點, 雰圍氣를 充分히 파악하기는 힘든 일이며 그 結果 筆者가 느낀점도 어떻게 보면 지 엽적이고 단편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런지 모르나 앞으로 우리 圖書館協會 나아가 圖書館界가 IFLA를 中心으로 한 국제무대에 진출하는데 있어서 다음 몇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되리라 생각한다.

(1) 이번 總會에는 다행히 복귀가 代表를 파견하지 않았지만 공산진영에서 總會가 開催될 경우는 대규모 代表團을 파견하여 선전활동을 벌릴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겠다는 점. 특히 來年 第38次 總會는 항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열리게 되므로 지금부터 그 준비가 필요하리라 본다.

(2) 우리나라보다 나중에 聯盟에 加入하였을 뿐 더 러 圖書館事業이 훨씬 뒤떨어진 中國이나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總會에서 論文을 發表하는 實情인데 加入한 지 15년이 넘는 우리나라로서 아직 1편의 論文도 IFLA 總會에서 發表되지 않은 研究 不況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겠다는 점.

(3) 總會에 對해서 充分한 時間的 여유를 두고 代表人選 問題라든가 資料준비 問題 등 만반의 준비를 해야 겠다는 점. 예컨대 今年度의 경우 代表人選이 너무 늦었던 感이 없지않아 있었고, 各國代表들에게 배부할 도서관협회 소개책자도 미비한 점이 다소 있었다.

(4) 圖書館協會內에 國際問題를 전담할 職員이나 專門委員會內에 國際部署를 新設하여 國際的인 動向에 민감해야 겠다는 점. 예컨대 IFLA 年次報告書인 IFLA Annual에 韓國圖書館協會의 年次報告書가 2회나 누락 되었고, IFLA 編目委員會의 質問紙의 回信은 무려 6 個月이나 지체되었었다.

(5) 유네스코韓國委員會, 商工部標準局 등 우리의 밀접한 關係가 있는 기관과 보다 더 긴밀한 유대관계가 필요하다는 점. 유네스코本부의 各種 圖書館關係 事業과 國際標準局(ISO)의 各種 標準化事業 가운데 圖書館 및 文獻정보학 分野에 관한 情報는 一次的으로 이들 機關을 통해서만 그 入手가 可能하다.

끝으로 이번 總會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代表를 參席할 수 있게 政策的인 뒷받침을 해준 政府當局과 旅行의 뒷바라지를 담당해 준 圖協當局에 深甚한 感謝를 드린다.